

국가의료보장국

CT, MRI, X 선 등 요금 신규 집행

기자가 20일 국가의료보장국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최근 국가의료보장국에서는 <방사선 검사료 의료서비스 가격 항목 설정 지침 (시행)>을 인쇄 발부하여 현행 방사선 검사 항목을 통합하고 표준화했으며 방사선 검사 가격이 합리화되도록 추동했다.

지침은 현재 방사선 검사료 가격 항목을 26 개로 통합했는데 영상기술에 따라 X 선 영상, 컴퓨터단층(CT) 영상, MRI, 단일광자/양전자 영상 등 유형으로 나뉘었다. 또한 각 성(자치구, 직할시)에서는 실제로 결부해 이를략하고 전 성(자치구, 직할시)에서 통일적인 가격 기준을 제정하며 가격관리 권한이 있는 통관관리지역에서 전 성(자치구, 직할시) 가격 기준과 비교하여 상하로 조정하여 실제 집행하는 가격수준을 확정하도록 요구했다.

국가의료보장국 해당 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요금 항목은 검사 효과에 중점을 둔다. CT 검사를 레로 들면 일반적인 CT 검사는 더 이상 CT 장비의 배수에 따라 요금 표준을 결정하지 않고 스캔층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얇은 층 스캔'(薄层扫描)에 대해 추가 청구 항목을 설정한다.

인공지는 기술과 의학 영상의 결합은 최근 몇 년 동안 의료 분야의 중요한 발전 추세로 되었다. 이에 지침은 방사선 검사 주항목에 '인공지능 보조진단' 확장 항목을 일괄적으로

배치했는데 병원에서 인공지능을 리용한 보조진단의 경우 주항목과 동일한 가격수준을 적용하되 주항목과 중복하여 청구하지 않도록 함으로써환자들의 추가적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했다.

근래대 저장 수단의 진보와 더불어 검사 결과의 보존과 열람은 더 이상 실제 필름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에 지침은 디지털 이미지 처리, 업로드, 클라우드 저장을 방사선 검사 비용에 포함시켰다. 레를 들면 의료기구에서 클라우드로 저장된 영상을 검사할 수 없다면 비용을 일정하게 줄여야 한다.

국가의료보장국 해당 책임자는 "이는 의료기구의 클라우드 영상 서비스 공급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지역, 병원간의 검사 결과 공유, 상호 인정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며 "지침은 또 통일적으로 실제 필름을 항목별 가격 구성에서 분리하여 환자가 수요에 따라 선택 구매하게 하며 실제 필름을 묶어서 비용을 받지 않고 제로가격 판매를 실시하도록 한다."고 표시했다.

료해에 따르면 국가의료보장국은 각 성을 지도하여 성급 기준 가격을 제정할 때 대형 검사장비 실제 조달 가격의 하락 추세에 주목하여 방사선 검사 서비스의 가격수준을 합리하게 하향 조정하고 검사 결과에 대한 상호 승인을 촉진하여 군중들의 진찰 부담을 경감하게 된다.

/ 신화사

우리 나라 의료구조대상 정보 공유 일층 강화

최근 부문간의 정보 공유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빈곤대중의 구조 자금 지불 결산에 영향을 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의료보장국 판공실, 민정부 판공청은 <의료구조대상의 정보 공유 사업을 일층 잘할 데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는 의료구조정책을 정확하게 실시하고 빈곤대중과 중특대 질병 환자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확실하게 경감하며 관련 정책 조치를 특별히 보완한다고 밝혔다.

통지는 다음과 같은 6가지 면으로부터 사업 조치를 제기했다.

첫째, 의료구조 정보 공유 관리를 강화한다. 부문간 정보 공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보 공유 사업의 수준을 명확히 한다.

둘째, 의료구조 대우 향수 기한을 규범화한다. 동태적 증가 또는 감소의 의료구조대상은 모두 신분 조정일 다음달부터 의료구조 대우를 향수하거나 중지하며 시간차로 대우를 향수하지 못할 경우 수제 결산할 수 있다.

셋째, 정보 공유 사업기제를 건전히 한다. 각지에서는 단계별로 부문간 정보 공유 사업기제를 구축

하고 건전히 하며 아직 정보 공유 기제를 구축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2024년 말까지 관련 부문을 포함한 의료구조대상 정보 공유 기제를 구축할 것을 명확히 요구한다.

넷째, 정보 공유 책임을 구체화한다. 성급 관련 부문에서 본 성의 의료구조대상 정보 사업에 대해 총책임은 지는 것을 명확히 한다. 정보 비밀유지 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공유 정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다섯째, 기반 정보 감시측정 및 검사를 강화한다. 기반 정보 공유 운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반 정보의 질을 향상시키며 다원적 데이터 교차 검증 기제를 탐색하여 구축할 수 있도록 각 부문에 요구한다.

여섯째, 정보 공유 사업의 목적을 잘한다. 정보 공유 방식에서 각지는 실정에 맞게 수공, 정보화 등 여러가지 적합한 방식으로 실시간으로 또는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공유하고 정보 공유 빈도는 원칙적으로 월 1회 이상이어야 한다.

/ 중국정부넷

안도현 의료공동체 재활봉사가기 지 건립



안도현 의료공동체 재활봉사가기 지 현판식 장면

장애인 재활봉사 수준을 제고하고 장애인 재활기구 기반시설을 최적화하며 사회구역 재활과 의료 재활을 효과적으로 결부시키고자 일선 안도현은 의료공동체 재활봉사가기 지를 설립했다.

료해에 따르면 안도현장애인연합회는 총 가치가 42만원에 달하는 재활기구 31 대를 구입했다. 기지가 설립된 후 안도현인민병원과 안도현중의병원은 재활팀을 구성하여 매주 정기적으로 기지에 가 훈련중인 장애인들에게 재활평가지도, 재활기술

훈련을 진행하고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개별 서비스를 제공하여 재활훈련 과정을 규범화하게 된다.

동시에 무료 하향진료와 기본재활봉사의 결합, 손금 장애인 재활실의 재활봉사와 가정의사 계약봉사의 결합, 재활인재 양성과 의료재활훈련의 결합 등 방식을 통해 안도현 장애인 재활봉사 사업을 새로운 단계로 추진하게 된다.

/ 리전기자

/ 사진 안도현당위

선전부



“당뇨병, 정확한 예방과 적시적 발견 및 치료 중요”

—연변병원 ‘당뇨병의 날’ 무료검진 자원봉사활동 전개



연변병원 ‘당뇨병의 날’ 무료검진 자원봉사활동 현장

최근, 18번째 ‘유엔 당뇨병의 날’을 맞아 연변대학부속병원(연변병원)에서는 ‘당뇨병의 날’ 무료검진 및 건강지식 보급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연변대학 내분비과와 영양과의 10여명 의료진은 이른아침부터 병원 로비에 무료진료 공간을 마련해놓고 대중들을 위한 무료검진과 자문봉사를 진행했다. 그들은 대중들에게 무료 혈당 체크, 혈압 체크 등 기초검사를 진행하고 병력 유무와 식생활, 운동습관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대중들의 의문에 해답을 해주었다. 또한 당뇨병의 발병 원인, 증상, 일상적인 예방, 올바른 인슐린 주사 방법, 저혈당 대처법, 식단관리법, 환자간호법 등을 설명해주었다.

연변병원 내분비과 부주임 김홍매는 “이번 활동은 당뇨병에 대한 대중들의 예방의식과 예방통제 기능을 제고하여 당뇨병 및 그 합병증의 발생을 통제하고 지연시키며 행복감을 제고하는 것을 취지로 하였다.”고 하면서 “오늘날 생활수준이 제고됨에 따

라 당뇨병 발병률이 날로 상승하고 있으며 발병 연령대도 낮아지는 추세로서 당뇨병에 대한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 당뇨병은 정확한 예방과 적시적인 발견 및 치료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홍매는 일상생활 가운데서 량호한 생활습관을 양성하고 소금, 설탕, 기름 섭취를 줄이며 특히 설탕이 많이 함유된 음료수를 적게 마시고 신체단련에 적극 참여하며 늦게 취침하거나 오래 앉아있는 등 건강하지 않은 생활습관을 개선할 것을 광범한 대중들에게 권장했다.

한편 간호사들은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당뇨병 예방치료 홍보자료를 배포하여 대중들이 당뇨병에 대해 더 잘 료해하고 자아보건의를 제고하도록 했다.

시민 왕녀사는 “좋은 행사였다. 무료로 건강검진도 받고 당뇨병에 대해 료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충분히 긍정했다.



/ 리전기자



시민들의 질문에 해답을 주고 있는 의료진

명중의 조계복 ‘기증 진입’ 활동 활발히 진행중

18일 연길시중의병원에서 가동된 전국 명중의 조계복 ‘기증 진입(연변역)’ 활동이 연변에서 활발히 진행중이다. 가동식 당일 전국 명중의 조계복 전승작업실은 또 연길시중의병원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료해에 따르면 장춘시중의병원 주임의사이며 장춘중의약대학 및 북경중의약대학 특별 초빙 전문가이며 제 5, 6, 7 진 전국 로중의약전문가 학술경험 계승사업 지도교사인 조계복은 2022년에 ‘전국 명중의’ 칭호를 수여받았다. 조계복은 진맥을 통한 고혈압, 심장박동 이상, 뇌경색, 동맥경화, 결핵성 복막염, 무맥증 등 내과 질환과 자궁근종, 불임증, 피부병 등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길시중의병원 당위 부서기이며 원장인 홍경호는 “우리 병원은 중의



연길시중의병원에서 환자를 진찰하고 있는 조계복

약사업의 전승과 발전에 앞장서 으면서 우수한 중의 인재를 양성하고 중의의료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며

중의 진료 능력과 우세를 발휘하는데 줄곧 힘써왔다.” 고 하면서 “조계복 작업실의 설립은 중의약 인재

대오의 건실한 성장을 추동함과 아울러 유명 로중의약전문가들의 학술사상을 전승하고 름상경험을 널리 보급하며 병원의 중의약 서비스 능력과 수준을 향상시키고 연변 중의약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조력함으로써 광범한 환자들에게 더욱 우수한 품질의 중의약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조계복 진료대오는 11월 18일부터 2025년 1월 22일까지 연길시중의병원, 왕청현중의병원, 룡정시중의병원, 화룡시중의병원, 훈춘시중의병원, 도문시중의병원, 안도현중의병원, 돈화시중의병원, 연변조외병원 등 9개 병원(기증 의료기구 포함)에서 진료 및 기증 중의사 양성 활동을 펼쳐면서 지원과 지도를 하게 된다.

/ 리전기자



추적코드 약품소모품 전반 과정 감독관리 실현

최근에 열린 ‘전국 의료보험 약품소모품 추적정보 수집 및 응용 상황 발표회’에 따르면 추적코드는 약품소모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약품소모품 생산기업, 도매유통기업과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보장한다.

약품 추적코드는 ‘한가지 약품 한개 코드, 약품 코드 동일 추적’ 원칙을 채용하여 매개의 약품에 전용 ‘신분증’을 발급한다. 같은 약품이라도 콰마다 부호가 다르다. 조사에 따르면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60%가 넘는

지정 의료기구와 99%가 넘는 지정 소매약국이 추적코드 채집 사업을 완성했다.

약품소모품에 신분을 식별할 수 있는 추적코드가 생긴 후 병원 관리가 편리해졌다. 현재 병원 내 약품소모품 관련 공급 절차는 모두 코드 스캔 작업으로서 코드 정보를 시스템 증빙서류에 남겨 바코드화, 이동화 작업을 실현했으며 조작이 간단하고 최적화되어 약품 처방의 조달 오류를 낮추었다.

/ 중국청년넷

돈화시병원 MMC 센터 국가급 센터로

최근 제 3회 국가표준화대사성질환관리센터(MMC)년차 총회 및 MMC센터 집중수여식에서 돈화시병원 대사성질환관리센터(MMC)가 중국내 분비대사병전문병련맹으로부터 정식 간판을 수여받았다.

돈화시병원은 2023년 7월 대사성질환관리센터(MMC)를 설립한 이래 관리와 건설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국내 최고의 병원, 과실 및 전문가와 긴밀한 협력을 펼쳐왔다. 원스톱, 표준화된 대사성 질환 종합관리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구축했고 대사성 질환 진료 관리의 새로운 모델을 혁신적

으로 개척했으며 환자에게 검사, 예방치료, 건강지도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진료 절차를 간소화하고 치료 능력을 향상시켰다.

센터 관리에 포함된 모든 당뇨병 등 환자는 지속적인 규범화 관리를 받고 있으며 전문적인 질병지식 선전, 신속 검측, 체계적인 수치 분석, 규범화 질병 진료 및 장기 추적 방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지금까지 돈화시병원은 엄격한 품질 통제와 표준화 관리로 1,400명의 환자를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 연변일보